다행이다, 아무도 외롭지 않아서

よかった、だれもひとりぼっちじゃなくて



E01 숲으로 돌아오는 길



한국어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성이가 연두집이 있는
숲 쪽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보리랑 모리는 지금 뭐 할까?”

우성이도 그쪽을 보았어요.
저녁 바람이 풀잎을 스치며
구수한 수프 냄새를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日本語

長い旅を終えた帰り道。
ジソンは、若草色の家がある森のほうを、
長いこと見つめていました。

「ボリとモリ、今、何しているかな？」

ウソンも、そちらを見ました。
夕方の風が草の葉をなでて、
おいしそうなスープの匂いを運んできました。

기존 삽화 참고 · 세부 장면 재작화 전
以前の挿絵を参考表示・細部の描き直し前

E02 기다리는 친구들



한국어

“우리가 늦게 오면
기다리느라 다리 아플 텐데.”

우성이가 걸음을
조금 빨리했어요.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어요.

동생 지성이가
작은 풀짚 바구니를 두
손으로 안고
종종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어요.

日本語

「ぼくたちが遅く帰ったら、
待っていて、足が痛くなるね。」

ウソンは、少し足を速めました。
そして、ふと振り返りました。

ジソンが、小さな草編みのかごを
両手で抱え、ちょこちょこついて
きました。

기존 삽화 참고 · 세부 장면 재작화 전
以前の挿絵を参考表示・細部の描き直し前

E03 먼저 달리는 지성이



한국어

이번에는 지성이가
우성이 앞을 총총
가로질러 달렸어요.

“형아, 저기 봐!
연두집 지붕이 보여!”

늘 형의 소매 끝을 잡고
따라가던 지성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제일 먼저 앞장서서 달렸어요.

日本語

今度は、ジソンが、
ウソンの前を、たたたっと走り抜けました。

「お兄ちゃん、見て！
若草色の屋根が見える！」

いつもは兄の袖につかまっていたジソンが、
帰り道では、いちばん先に立って走りました。

기존 삽화 참고 · 세부 장면 재작화 전
以前の挿絵を参考表示・細部の描き直し前

E04 문 앞의 손님들



기존 삽화 참고 · 세부 장면 재작화 전

以前の挿絵を参考表示・細部の描き直し前

한국어

연두집 마당으로 들어서자,
함께 길을 걸어온
손님 친구들이
문가에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비버 목수 아루,
흰 두루미 새온,
회색 거북 여울,
그리고 사슴 손님 이든과
산토끼 타루였어요.

日本語

家の庭へ入ると、
一緒に道を歩いてきたお客さんたちが、
入口で、少しためらいました。

ビーバーの大工アル。
白いツルのセオン。
灰色のカメ、ヨウル。
シカのイデンと、野ウサギのタルです。

E05 먼저 내어 주는 자리



기존 삽화 참고 · 세부 장면 재작화 전
以前の挿絵を参考表示・細部の描き直し前

한국어

처음 숲에 왔을 때,
우성이와 지성이는
누군가가 미리 내어 준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긴 길을 다녀온 오늘,
형제는 자기들이 먼저
앉지 않았어요.

“이든아, 이쪽 구석 자리는
바람이 안 불어서 아주 따뜻해.”

日本語

初めて森へ来たとき、
ウソンとジソンは、
だれかが先に用意してくれた席に
座りました。

でも、長い道を帰ってきた今日は、
兄弟は、先に座りませんでした。

「イデン、この隅の席は、
風が来なくて、あったかいよ。」

E06 더 넓어진 식탁



기존 삽화 참고 · 세부 장면 재작화 전
以前の挿絵を参考表示・細部の描き直し前

한국어

우성이와 지성이는
마당 구석에서 작은
나무 의자들을
하나씩 둘씩 날라 왔어요.

둥근 식탁 옆에
작은 식탁을 하나 더
이어 붙였어요.

한 사람도 서 있는
친구가 없도록
자리를 넉넉하게 넓혔어요.

日本語

ウソンとジソンは、
庭の隅から、小さな木の椅子を、
一つ、また一つと運びました。

丸い食卓の横に、
もう一つ、小さな食卓をつなぎました。

立ったままの友達が一人もいないように、
席を、たっぷり広げました。

E07 쿠마타, 발



기존 삽화 참고 · 세부 장면 재작화 전
以前の挿絵を参考表示・細部の描き直し前

한국어

보리가 커다란 냄비를
들고 나왔어요.
지성이가 냄비 뚜껑을 닫으려다
손을 멈췄어요.

“쿠마타, 발.”

냄비 옆에 바짝 다가와
있던 쿠마타가
얼른 앞발을 쏙 뺐어요.
식탁 둘레에 웃음소리가
와르르 번졌어요.

日本語

ボリが、大きなお鍋を持って
きました。
ジソンは、ふたを閉めようとして、
手を止めました。

「クマタ、足。」

鍋のそばに、ぴったり近づいていた
たクマタが、
あわてて前足を引っ込めました。
食卓の周りに、わっと笑い声が広
がりました。

E08 숟가락 옆 조약돌



한국어

해달은 자기가
아끼던 조약돌들을
손님들의 접시 옆에
하나씩 놓아주었어요.

“이건 숟가락이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놓아두는 돌이야.”

모리는 밤새 땋아 둔 새
칡덩굴 매듭으로
해달의 낡은 바구니 손잡이를
단단하게 묶어 주었어요.

日本語

ラッコは、大事な小石を、
お客さんのお皿の横へ、一つずつ
置きました。

「スプーンが風で飛ばないよ
うにする、
石だよ。」

モリは、一晩かけて編んだ新しい
クズのつるで、
ラッコの古いかごの持ち手を、
しっかり結んであげました。

기존 삽화 참고 · 세부 장면 재작화 전
以前の挿絵を参考表示・細部の描き直し前

E09 눈을 바라보는 친구



한국어

초록 공룡 뇨끼는
가장 늦게 도착한 회색
거북 여울과
달팽이 느루 옆에
나란히 엎드렸어요.

두더지 콩이는
얼굴을 가리던 커다란
지도를 접어
식탁 밑에 내려놓고
친구들의 눈을
하나씩 바라보았어요.

日本語

緑の恐竜ニョッキは、
最後に着いた灰色のカメ、
ヨウルと、
カタツムリのヌルの横に並んで伏せました。

モグラのコンイは、
顔を隠していた大きな地図を畳み、
食卓の下へ置いて、
仲間の目を、一人ずつ見ました。

기존 삽화 참고 · 세부 장면 재작화 전
以前の挿絵を参考表示・細部の描き直し前

E10 두두가 그린 식탁



기존 삽화 참고 · 세부 장면 재작화 전
以前の挿絵を参考表示・細部の描き直し前

한국어

아기돼지 두두는
가슴 주머니에서
몽당연필을 꺼내
오늘 식탁에 모인
친구들의 얼굴을
종이 위에 하나씩
그려 넣었어요.

글자를 몰라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둥근
식탁 그림이었어요.

日本語

子ブタのドゥドゥは、
胸のポケットから短い鉛筆を出し、
今日、食卓に集まった仲間の顔を、
紙の上に、一人ずつ描きました。

字が分からなくても、
だれにでも分かる、
世界でいちばん丸い食卓の
絵でした。

E11 나뭇가지의 노래



기존 삽화 참고 · 세부 장면 재작화 전
以前の挿絵を参考表示・細部の描き直し前

한국어

작은 새 피오와 바다 건너 온
제비 리리가
나뭇가지 위에서 나란히
노래를 불렀어요.

언덕 너머에서 불어온
저녁 바람이
식탁 위의 등불을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日本語

小さな鳥のピオと、海を渡ってきたツバメのリリが、
枝の上で並んで歌いました。

丘の向こうから吹いてきた夕風が、
食卓のランタンを、
ゆらゆら揺らしました。

E12 따뜻한 옆자리



기존 삽화 참고 · 세부 장면 재작화 전
以前の挿絵を参考表示・細部の描き直し前

한국어

식탁 둘레에
빈자리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여기 앉아.”
우성이가 마지막 의자를
끌어 주었어요.

지성이도 옆자리를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여기는 내가 데워
놨어. 따뜻해.”

日本語

食卓の周りには、
空いた席が、一つもなくなりました。

「ここ、座って。」
ウソンが、最後の椅子を引きました。

ジソンも、隣の席を、
手のひらで、とんとん。
「ここ、ぼくがあっためておいたよ。あったかいよ。」

E13 이름을 부르는 밤



기존 삽화 참고 · 세부 장면 재작화 전
以前の挿絵を参考表示・細部の描き直し前

한국어

흰 두루미 새온은
잠들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같이 있던 친구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 보는 거예요.

기다란 목을 접으며, 아주 작게.
“작은 물새. 우성이. 지성이.
모리. 해달. 보리. 뇨끼…….”

日本語

白いツルのセオンには、
眠る前に、必ずすることが
あります。

今日、一緒にいた仲間の名前を、
一人ずつ呼んでみるのです。

長い首を曲げて、とても小
さな声で。
「小さな水鳥。ウソン。ジソン。
モリ。ラッコ。ボリ。ニョッ
キ……。」

E14 아무도 외롭지 않아서



기존 삽화 참고 · 세부 장면 재작화 전
以前の挿絵を参考表示・細部の描き直し前

한국어

밤하늘에 둥근 달님이 떠올라
연두집 지붕과 긴 식탁을
포근히 내려다보았어요.

하늘부모님이 처음
숲을 지으시며
함께 살고 싶으셨던 아이들이
바로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다행이다.
아무도 외롭지
않아서 다행이다.’

日本語

夜空に丸いお月さまが昇り、
若草色の屋根と長い食卓を、
やさしく見下ろしていました。

天の父母様が、初めて森をつくられたとき、
一緒に暮らしたいと願われた子どもたちが、
まさに、そのように育っていたのです。

『よかった。
だれも、ひとりぼっちじゃなくて、
よかった。』